

日本 南禪寺 所藏의 高麗 初雕大藏經

A Study 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of the Nan-Zen Ji

南 權 熙(Nam, Kwon-Heui)*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大藏經의 高麗 筆寫本 |
| 2. 初雕大藏經의 성립과 특징 | 6. 版本에 나타난 각종 기록류 |
| 3. 南禪寺와 初雕大藏經 | 7. 맺음말 |
| 4. 南禪寺 大藏經중의 高麗 관련 기록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11세기에 간행되어 현존하는 초조대장경의 撮影 및 影印을 위한 事業내의 일부분으로 각 세부 조사영역 중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개별 자료들의 특징을 형태서 지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자료의 집산이나 전래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초조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남선사에서 전래경위를 살피고 17세기초 선창사에서 옮겨진 내력 등을 살펴보았다. 개별자료의 분석에서는 초조대장경은 물론 같이 수장된 재조대장경, 사찰간행본, 사경이 포함된 고려본을 대상으로 형태와 수록된 기록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要語 : 남선사, 초조대장경, 선창사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from a physical bibliographical point of view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pies of the existing 《The first Tripitaka Koreana(初雕大藏經)》, first published in the 11th century. In this research,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ollection,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Tripitaka》, it was examined that how and why in the 17th century they were transferred from Zen-so

* 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nakwhe@hanmail.net)

접수일: 2007년 5월 7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Ji(禪昌寺) to Nan-Zen Ji(南禪寺) in Kyoto(京都), Japan.. which currently holds over 5,600 copies, the largest collection of «The first Tripitaka Koreana». To analyz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individual copies, not only «The first Tripitaka Koreana», but also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various publications by Buddhist temples, and sutra-copies produced in the Goryeo Dynasty, and held together at Nan-Zen Ji, were extensively examined.

Key words : Tripitaka Koreana, Nan-Zen Ji, Zen-so Ji

K C I

1. 머리말

이 연구는 高麗大藏經研究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初雕大藏經 撮影 및 影印事業 내의 각 세부 조사영역 중의 일부분이다. 사업의 주된 목적은 원본의 촬영이지만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개별 자료들의 특징을 형태서지학적으로 살펴보거나 再雕大藏經과의 원문비교를 통한 校勘學的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의 관련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1.1 조사 및 연구대상

초조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004년도 해당분으로는 개인, 박물관, 도서관 등 국내의 여러 소장기관과 일본의 남선사 소장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의 남선사 소장본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예비적 준비 단계로 조사의 표본이 될 만한 「御製秘藏鈔」을 비롯한 일부 경전과 중국의 開寶勅版大藏經과 각 시대별 대장경에 대한 비교 검토가 花園大學 國際禪學研究所와 南禪寺측 오카다선생의 협조아래 동시에 진행되었다.

2005년에는 경기도 박물관, 연세대 도서관 등 국내기관과 일본의 남선사에서 초조대장경의 조사가 계속되었다. 동시에 2004년의 조사분 170책은 <高麗初雕大藏經集成>¹⁾ 4책으로 간행되었다. 2006년에는 誠巖古書博物館의 자료를 조사·촬영하였으며 국외기관으로는 南禪寺 자료가 2004년분에 이은 계속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南禪寺 소장의 자료는 2007년 현재 조사가 진행중(4/5)이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나 개별경전의 특징을 같이 살펴볼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또 초조대장경의 규모를 파악하고 高麗版들과 혼합되어 一切藏을 이루고 있는 開寶勅版大藏經, 積沙, 崇寧, 普寧 등 宋·元版의 대장경과 일본의 사경도 일부 포함하여 조사되었지만 이번의 주제와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간단한 언급만

1)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4(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으로 그치고 별도의 논고로 발표할 예정이다.

2005년은 71책, 2006년에 조사된 남선사의 초조대장경은 330종 767帖, 2007년 1월에 조사한 620帖이며 고려 사경 「金光明經」과 「深密解脫經」 및 재조대장경을 포함한 중국 원판대장경과 일본의 寫經도 일부 포함하였다.

1.2 연구 방법

이와 같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초조대장경의 일반적인 형태라든가 개별 경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미 선행연구나 국가문화재지정을 통하여 밝혀진 여러 기록들 중 필요한 부분은 발췌하거나 간접자료로 검토하는 데 그치고 각 자료의 형태서지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 ① 裝訂의 형태: 製本 方式, 軸, 原表紙의 傳存有無
- ② 本文의 進本 형태: 낙장, 훼손, 후대의 필사보충
- ③ 종이: 크기, 紙質
- ④ 傳來 記錄: 고려와 관련된 기록이나 禪昌寺, 南禪寺로의 전래과정
- ⑤ 刻手
- ⑥ 印章: ‘攝州兵庫下庄帝釋神撫山禪昌寺常住’, ‘天龍寺’, ‘香椎宮藏經’, ‘普度院’, ‘明州寶嚴藏’, ‘明州天寧寺藏’, ‘永樂寺’ 등
- ⑦ 印刷의 着墨 狀態
- ⑧ 보관용기
- ⑨ 관리방법

그밖에 판본의 대조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도 함께 검토하였다.

- ① 文字의 誤·脫을 바로 잡은 경우
- ② 文章의 添·削이나 移動의 경우
- ③ 內容의 전체적인 재편집
- ④ 書名, 著者名, 函次名의 변화

그러나 이 연구에 있어서는 개별경전에 대한 검토나 분석은 차후로 미루고 우선 南禪寺 소장 초조대장경이 어떻게 전래되었으며 비록 완전한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형태적인 특징과 일부 자료에 대한 본문 대조 과정에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쳤다.

1.3 선행연구

초조대장경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체로 역사적 연구와 실물조사, 대장경의 목록체계와 50화엄경과 같이 내용과 편차의 이동 등에 관한 연구, 원문에 표시된 각필이나 목서구결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역사적 배경 연구에서는 日人學者 妻木直良, 竺沙阿章²⁾, 大屋徳城 등과 천혜봉, 문경현 등의 연구가 있고, 실물조사 부분에서 남선사 대장경에 대해서는 小野玄妙가 1929년에 조사한 것³⁾을 비롯하여 김두중⁴⁾, 천혜봉 등의 연구가 있다. 목록의 편성과 체계에 대해서는 정필모가 高麗時代의 佛典目錄研究에서 大藏目錄을 「開元釋教錄」, 「續開元釋教錄」, 「大中詳符法寶錄」과의 비교와 「校正別錄」의 校正記를 따라 初雕大藏目錄의 복원⁵⁾이 시도되었다. 강순애도 再雕大藏經 更函에 入藏된 舊大藏目錄을 初雕大藏經目錄의 근거로 보고 更函 앞에 있는 川函부터 楚函까지 실린 570函에 실린 經典들을 기초로 初雕大藏經을 구성하였으며 開元釋教錄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사⁶⁾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初雕大藏經의 刊行目錄은 藏經이 수입되는대로 刊行하여 編入시킨 刊行累加目錄며 舊大藏目錄의 구성체계는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開元釋教錄에 의거하여 板刻한 北宋 開寶勅板의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杜函부터 楚函⁷⁾까지는 宋朝大藏經이

2) 竺沙阿章, 「宋元佛教文化史研究」(東京: 汲古書院, 2000).

3) 小野玄妙, “高麗大藏經雕印考,” 「佛典研究」1-4(1929).

4)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81), 59-69.

5) 정필모, “高麗 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3-108.

6)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開元釋教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1집(1995), 75-166.

7)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

들어오는대로 累加 편입하였기 때문에 구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開元釋教錄의 入藏錄과 舊大藏目錄을 비교한 결과로 大藏目錄의 追加經典은 15種이며 開元釋教錄의 追加經典은 9種이라 하였다.

국내의 소장자료의 발굴과 연구에서는 천혜봉에 의하여 「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⁸⁾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확인되었고 특히 「湖林博物館所藏 所藏初雕大藏經調查研究」에서는 77종이 조사·연구되었다. 또 일본의 對馬·壹岐의 「大般若波羅蜜經」 등⁹⁾도 조사되었다. 한편 口訣學會에서도 정재영, 남풍현, 이승재 등이 성암고서박물관의 자료중 각필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이승재¹⁰⁾, 류부현¹¹⁾ 등의 50화엄경의 성립과 이본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필자 등이 2004년도에 조사한 170책은 영인 간행되어 연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서지사항에 대한 조사목록도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편집·간행중에 있다. 한편 이미 「大丈夫論 卷第三十二」, 「阿毗達摩大毗婆沙論 卷第二百」, 「佛說興起行經」,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등 4종에 대해 형태적인 조사와 함께 初雕本과 再雕本の 대조¹²⁾를 통하여 내용의 차이를 살펴 보고한 바 있다.

한편 2006년 海印寺에서 개최된 제3회 韓國佛敎學結集大會에서는 일본의 禪昌寺 住持인 近藤利弘이 현재 南禪寺에 소장된 대장경이 원래 보관되어 있었던 고베의 禪昌寺에 수집된 경위와 南禪寺로 옮겨진 과정 등에 대하여 발표¹³⁾하였다.

그밖에 南禪寺와 관련된 각종 기록들을 시대별로 정리한 「南禪寺文書, 上·中·下卷」¹⁴⁾의 3책이 있고 南禪寺 자체로 대장경 전체에 대하여 5년간 서지조사를 카드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究」 제12집(1996), 115-169.

8) 千惠鳳, 「韓國書誌學研究」(서울: 삼성출판사, 1991), 499-532.

9) 상계서, 465-498.

10) 이승재, 「50권본 화엄경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1) 류부현, 「寺刊版 50권본 화엄경 권제29 연구」,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13-131.

12)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129-146.

13) 近藤利弘, 「神戸·禪昌寺舊藏, 大本山南禪寺藏一切經の由來」, 제3회 韓國佛敎學結集大會 별지(합천: 해인사, 2006).

14) 櫻井景雄, 藤井學 共編, 「南禪寺文書」, 上(1972)·中(1978)·下(1978)卷(京都: 南禪寺宗務本所, 1972, 1978).

2. 初雕大藏經의 成立과 特徵

2.1 성립배경

신라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동양에서 문명국의 위치는 불교문화의 깊이 여부에 따라 좌우되었다. 北宋에서 동양 최초로 거질의 開寶勅版 大藏經이 開板되고, 8년 후인 成宗 10년(991)에 고려에 전래되었으니 불교가 국가적 신앙이었던 高麗는 이를 판각하여 문화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契丹의 외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국난은 몽고의 침입시 李奎報가 찬한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도 나타나 있듯이 大藏經 板刻에 의한 불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大藏經의 판각은 문화국으로서의 위력을 이웃나라에 선양코자 했음은 물론, 특히 신앙으로 당시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발원에서 顯宗 2年(1011)무렵에 착수된 것이 바로 初雕大藏經의 판각이었다. 顯宗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玄化寺를 창건하고 이 절에 부모의 追善을 위하여 많은 藏經을 간행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初雕大藏經을 조조했다는 견해도 있다.

初雕大藏經의 板刻에는 주로 宋本이 밑바탕이 되었으나, 한편 契丹大藏經에 의한 것도 적지 않게 편입되었다. 契丹本은 初雕大藏經보다 늦게 遼의 景福年間(1031)에 착수되어 重熙 23년(1054)무렵까지 대체로 완성을 본 것인데, 그것이 高麗에는 文宗 17년(1063) 3월에 도입되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高麗 初雕大藏經의 조조시기는 대체로 顯宗 2년(1011)부터 宣宗 4년(1087)까지로 보고 있어서,

… 顯宗 2年 契丹主가 병사를 大擧하고 內寢했을 때 顯祖(宗)은 피난으로 南行하고 丹兵은 松岳城에 주둔하여 물러서지 않자 드디어 軍신과 더불어 無上大願을 발하여 大藏經板本을 각성할 것을 맹세하더니 연후에 丹兵이 自退하였다 …¹⁵⁾

15)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5, 272-273.

라는 기록에 의하여 大藏經 조조의 시작은 顯宗 2년으로 보고 있다. 이후 德宗, 靖宗이 재위하였으나 大藏經 간행에 관한 뚜렷한 기록은 없으며, 顯宗이후 가장 활발한 大藏經 간행을 보인 때는 文宗 시기였다. 義天이 찬한 「大宣王諸宗教藏雕印疏」에서 ‘顯宗은 五千軸의 秘藏을 雕造하고, 文考(宗)은 千萬頌의 契經을 雕鏤했다’¹⁶⁾라고 하였다. 이들 기록으로 보아 初雕大藏經은 顯宗과 文宗朝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그 끝은 文宗 말년에 들어온 經典을 추가로 새기는 작업이 宣宗 4년(1087)에 와서 마치는 것으로 보아 初雕大藏經의 조조 시기는 宣宗 4년에 와서야 일단락되는 셈이다. 하지만 開京 興王寺에 봉안했던 大藏經을 언제 大邱 附近의 八公山 符仁寺에 移藏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다만 「高麗史」 高宗 38年 9월 壬午條에 顯宗때의 大藏經板이 壬辰年 蒙古兵難에 타버렸다 하고 李奎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 達旦(몽골)군 兵患은 잔인 兇포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 불경할 것 없이 모두 불살랐으니 符仁寺의 소장 대장경 판본도 또한 모두 태워 남음이 없으니, 아! 적년의 공이 하루 아침에 재가 되었으니 나라의 대보를 잃었도다.

이런 기록에 의하여 高宗 19년(1232) 이전에 대장경이 符仁寺에 옮겨왔음을 알 수 있고 또 守藏한 初雕大藏經板이 모두 蒙古兵에 의하여 불타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다.

2.2 宋·遼本 大藏經과의 관계

初雕大藏經 성립에 영향을 주고 간행상의 바탕이 된 開寶勅板大藏經(이후 ‘開寶藏’이라 약칭)은 중국에서 開寶 4년(971)에 조조되기 시작하여 太平興國 8년(971)에 완성된 13만여판의 5,040餘卷 480帙에 해당하는 本藏과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된 續刊을 포함한 北宋官板大藏經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開寶 4년(971)에 勅令으로 雕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開寶勅板大藏經”, “開寶藏” 등으

16) 義天, 「大覺國師文集」 卷15.

로 불리우며 또한 益州에서 조조되었기 때문에 “蜀本大藏經”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80帙에 해당하는 本藏만을 “開寶藏”으로 지칭하고, 本藏 이후의 續刊은 “宋朝大藏經”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契丹大藏經은 遼에서 雕造한 것으로 契丹藏 혹은 遼本大藏으로 부르고 있다. 契丹族이 遼를 건국한 시기인 11세기에 漢文大藏經을 출판했다는 사실은 妻木直良의 <論契丹雕造大藏經之事實>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契丹 전성시대에 불교를 믿은 遼나라의 興宗皇帝는 南京 析津府에 대장경의 雕造를 명했다. 그리하여 燕京의 圖福寺의 비구 覺苑이 우두머리가 되어 非濁, 法均, 詮曉 등과 함께 불전을 校勘하고 대장경의 출판준비를 하였다. 景福年間(1031-1032)으로부터 重熙 22년(1054)에 이르러 雕造事業을 완료하였는데, 이 契丹經의 내용은 「開元釋教錄」 480질, 「續開元釋教錄」 250질 및 宋朝新譯經典, 章疏, 音義類 741질로 이루어졌다. 山西 大華嚴寺內에는 遼代에 經藏處가 현존하고 있다 … 17)

契丹은 興宗의 명에 의하여 1031년부터 1054년에 걸쳐 불전의 校勘과 雕造事業을 진행시켰으며 또한 金나라 大定 2년(1162) 省學의 「大金國西京大華嚴寺重修薄伽教藏記」에는 遼나라 重熙年間(1032~1054) 契丹版大藏經 579帙이 薄伽教藏內에 안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¹⁸⁾ 이 거란대장경은 1974년 7월 山西 應縣 木塔의 釋迦像佛腹藏에서 실물이 처음으로 발견되어 木板 佛經 47권 중 천자문의 번호가 부여된 12권이 확인되었다.¹⁹⁾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란장의 기본틀은 한 행에 15-18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또 다른 契丹藏의 형식에 대한 기록으로 「東文選」 卷112에 수록된 고려 圓鑑國師의 「丹本大藏慶贊疏」중에 “秩簡部輕, 函未盈二百, 紙薄字密, 冊不滿於一千 殆非人巧所成, 似借神巧”이라고 하여 契丹本 大藏經이 작은 자로 줄이 뻑뻑하게 새겨진 것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17) 妻木直良, “契丹に於ける大藏經雕造の事實お論ず,” 『東洋學報』 2輯(1912), 330.

18) 童珪, 「二十二種大藏經通檢」(北京: 中華民國出版, 1997), 10.

19) 竺沙阿章, 『宋元佛教文化史研究』(東京: 汲古書院, 2000), 88-89.

이 契丹藏은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번 高麗에 유입되어 경전 출판의 底本 혹은 校正의 기준본으로 활용되었으며 大覺國師 義天이 기획한 敎藏의 底本으로 활용되고 守其法師가 再雕大藏經의 校正의 參考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開寶藏”과 “契丹藏”에 영향을 받은 初雕大藏經은 형식과 체제상에서는 宋本과 유사한 점이 많고 거란대장경이 전래된 후의 國後本에서는 내용상을 참조한 것도 많다.

2.3 初雕大藏經 刊本の 形態書誌的 特徵

2.3.1 물리적 형태

初雕本の 일반적인 크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紙高의 경우 27.8~29.3cm까지, 匡高는 21.5~23.5cm, 紙幅은 45.0~52.3cm로 나타난다. 그러나 「大方廣佛華嚴經」과 「御製秘藏詮」의 경우 紙幅이 크기는 55.3cm로 다른 經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세로받근 폭의 경우 初雕本에서는 3.0~3.5cm에서 4.5cm까지 나타난다.

紙質의 경우에도 한 종류의 紙를 이용한 것과 여러 종류의 紙를 같이 사용한 經典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阿毗達摩大毗婆沙論 卷第九十九」의 경우 경전에서 사용되는 종이 7張과 11張의 경우 색과 두께에서 완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法苑珠林 卷第八十二」 등의 經典에서는 藁精紙의 사용이 많다.

南禪寺 소장본에는 많은 경전에 禪昌寺 소장을 의미하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분량이 적은 경전의 경우는 생략된 경우가 많다.

2.3.2 板面の 體制

初雕大藏經의 첫 장에는 卷首題와 卷次 그리고 函次가 반드시 刻入되어 있고 다음 행에는 造·譯者名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行字數는 全紙 한 장에 수록된 本문의 行수와 각행에 수록된 本문의 字수로 御製秘藏詮, 御製道謠詠, 御製緣識

등 小字雙行인 經典을 제외하면 初雕本은 첫 張이 22行 14字, 그 이하의 張은 23行 14字로 되어 있다. 板首題, 卷, 張, 函次의 표시는 國刊의 대장경은 寺刹版과 달리 각 장마다 板首題, 卷次, 張次에 이어 函次가 대부분 책장의 앞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그 표시위치와 표시문자의 일부가 初雕本과 再雕本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형태상의 차이가 있다.

初雕本의 경우 板首題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再雕本의 경우 板首題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板尾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初雕本의 일부 經典의 마지막 張 板首題에서 經名을 생략한 채 函名과 張次表示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版心題의 경우 原書名, 略書名이 적힌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한 글자로 줄인 경우도 있다. 또 중국의 大藏經을 바탕으로 하거나 영향을 받아서 합차 표기에서 ‘字號’라는 기록도 일부 남아 있다.

版式은 卷子本이 아니면 折帖本의 裝訂으로 各紙張을 이어 붙일 때 대부분 書名과 卷次·丈이나 幅次, 函次가 기록되어 있다. 또 卷의 마지막부분에 있어서 南禪寺 소장본들은 折帖本의 형태로 改裝되어서 「大乘莊嚴經論」과 같은 경전의 끝부분에 卷子本의 軸을 싸기 위하여 상하단을 삼각의 형태로 잘라내었던 燕尾가 남아있다.

그리고 刊記는 初雕大藏經의 경우 생략되어있으나, 권말에 底本의 내용인 중국에서 譯經이나 刊經에 동원된 인물이나 底本의 년기 등이 그대로 새겨진 경우도 있다.

또 본문 중 避諱 缺劃된 문자가 보이는 바 이는 北宋版에서 宋 太祖를 비롯한 始祖, 高祖, 曾祖, 祖, 父의 諱와, 그 諱字로 구성된 여러 글자를 兼避하기 위해 획을 생략한 문자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초조대장경에서는 ‘玄·敬·警·竟·境·鏡’字 등이 있는데 ‘玄’ 등의 마지막 빠침 획이 없다. 그러나 避諱 缺劃이 있는 ‘敬’字라고 해서 그 諱字와 兼避誤字가 모두 省劃된 것이 아니며 완전하게 고쳐 새겨진 것이 적지 않게 섞여 있다.

2.3.3 板刻과 印出의 상태

조사대상 자료인 初雕本의 板刻상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 ① 印面으로 볼 때 남선사 소장본은 국내전본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木理나 ㅁ모의 흔적이 적은 점으로 보아 새긴 후 그리 오래지 않아 인출된 것이 대부분이다.
- ② 印面에서 획이 둔해지지 않았으나 획의 부분 부분이 끊어진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사용된 경판 목질의 성격상 외부 충격 등으로 쉽게 떨어져나가는 材質이었거나 새기는 과정 혹은 移動이나 초기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 ③ 菩提流支 번역의 「彌勒菩薩所問經論」의 경우와 같이 落張되어 전래된 초조본은 나머지 부분을 筆寫하여 合綴시켰다.
- ④ 脫劃 현상은 본문 중의 글자가 印面으로 볼 때 일부의 획이 떨어져나간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경전의 印面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훼손이 심한 경전뿐만 아니라 木理가 보이는 경전에서도 자주 보인다.
- ⑤ 일부의 경전에서 朱書로 교정된 부분이 간혹 보이며 이는 일인에 의하여 후대 읽혀지면서 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2.3.4 墨과 印出의 상태

經典의 印面에 나타나는 흔적들을 살펴보면 대개 佛腹藏에서 보이는 누습현상이 있다. 「讀誦佛母大孔雀明王經 卷上」을 비롯하여 국내기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日本 南禪寺 經典의 경우에도 일부 경전에서 같은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紙面과 邊欄에서 먹 번짐현상과 착묵상태가 불량한 경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전의 본문에서 몇 장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며 본문의 字面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雜寶藏經 卷第三」과 같은 경우 着墨狀態가 불량하게 나타나며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一」와 같은 경우 인출시 기술의 미숙으로

인하여 흔들려 이중으로 인출된 장이 있는 經典도 다수 있다. 보존상태 면에서 남선사의 일부 초조대장경은 충식으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된 것도 있다.

3. 南禪寺와 初雕大藏經

3.1 禪昌寺와 大藏經 蒐集²⁰⁾

禪昌寺의 창건에 관련된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대체로 1389년에 입적한 月菴宗光에 의하여 開山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14세기 후반의 시기로 추정된다.

1614년에 德川家康의 명에 의하여 南禪寺로 이관되었던 대장경은 본래 禪昌寺에 소장되어있던 자료였다. 이 자료의 성립과 관련된 사람중 선창사에 남아있는 江戸時代의 기록에는 月菴禪師와 제자인 無見和尚이 둘 다 중국으로 건너가 대장경의 수집에 진력을 다하였으나 완수하지 못하고 1393년(또는 1407년, 異說이 있음)에 현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禪昌寺 舊藏의 대장경 중에는 권말에 應永 元年(1394)에 筑前博多에 살던 사미승인 慶安이 兵庫의 神撫山 禪昌寺를 위하여 경전을 수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책이 수십 책이 있다. 한편 <月菴禪師語錄>중의 ‘慶安大師講’이라는 제목 아래의 내용중에는 四恩 즉 부모, 중생, 국토, 삼보를 위하여 경전을 수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慶安은 월암선사의 제자로 九州의 博多에 거주하던 사람이며 無見和尚의 대장경 수집에 협력하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고려나 중국 각지에서 간행된 것을 구입하여 서서히 대장경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近藤利弘의 견해에 대하여 南禪寺 소장 대장경중 중국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선왕과 관련된 ‘瀋王府’인이나 찍힌 元版大藏經이 다수 있으

20) 近藤利弘, “神戶・禪昌寺舊藏, 大本山南禪寺藏一切經の由來,” 제3회 韓國佛敎學結集大會 별지(합천: 해인사, 2006)의 부분 발췌요약. 이 자료는 별지로 배포되고 본문 중에는 ‘お經の集大成, 一切經’이라는 별도의 글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되어 있지 않고 페이지 차례도 기록되지 않아 부득이 구체적 인용면수를 표기하지 않음.

며 함께 포함된 함차를 가진 高麗墨書經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에 전래되었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자료가 다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추론은 어려울 것 같다.

아무튼 대장경의 관점에서 수집된 경전들의 부족분은 應永 7年(1400)부터 正長 2年(1429) 사이에 필사로써 보충되었다. 이 때 필사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① 三條 東洞院 大隱庵, ② 東山 靈山 報恩庵, ③ 天王寺 勝鬘院 之客軒, ④ 河內國 交野郡 戒慧山 興禪寺, ⑤ 攝津國 尼崎 海雲山 興禪寺 ⑥ 熊內 西牧庵 등 교토, 오사카, 코베 등의 일원에서 서사하여 추가되었다. 또 宗源 등이 시주하고 檀越로 참여하여 양친의 명복과 자손의 번영을 바라면서 書寫의 경비를 엄출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전란을 치르는 동안 변화를 거쳐 豊臣秀吉이 三木의 別所 長治를 토벌할 때 진지로써 이용되면서 본당과 여러 건물이 불 타버렸다. 후에 豊臣秀吉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후시미의 桃山城내의 豊國亭과 門을 禪昌寺로 옮겨 세우도록 하였다.

1613년 徳川家康이 여름 豊臣秀吉의 아들 秀頼에게 선창사에 소장된 대장경을 양도받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金地院의 崇傳은 이 귀중한 대장경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염려하여 즉시 徳川家康에게 상소하여 승인을 받고 本山인 南禪寺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음해 1614년 1월 禪昌寺의 本院인 南禪寺塔頭 眞乘院에 그 명을 전하고 찬성을 얻은 후 京都所司代 板倉勝重이 이 건에 대하여 선창사의 후원자들에게 글을 보내어 이의가 없음을 확약을 받아 추진하였다.

崇傳은 板倉勝重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移送 作業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하고 겨울 날씨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남선사로 연락하였다. 이때 良西堂(最岳元良, 南禪寺 24代), 賽西堂(有雅元賽), 超首座(義海正超)가 대장경의 이송을 위하여 선창사로 파견되었으며, 板宿을 관할하는 兵庫의 관리였던 片桐且元·貞隆의 형제가 배를 구하고 이송을 보호하기 위하여 京都의 鳥羽까지는 배편으로 鳥羽에서 남선사까지는 육로의 수레를 사용하여 1월 26일 이전에 배에 실려져 南禪寺에 도착된 것은 2월 5일경이었다. 도착 후 즉시 강호의 崇傳에게 알려지고 徳川家康에게 보고 되었다.

江戸末期의 선창사 기록에 의하면 대장경을 남선사로 이관시킨 대가로 선창사는 남선사의 眞乘院으로부터 月庵禪師의 衣鉢과 함께 남선사를 개창한 龜山法皇의 御持念에 있던 佛舍利塔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3.2 南禪寺의 역사

臨濟宗 南禪寺는 京都 東山 가람의 일부로 그 시작은 鎌倉時代 正應 4年(1291)에 龜山法皇이 無關普門 禪師를 맞이하면서 開創되었다.

창건과 관련한 「勤仲記」나 「實躬卿記」의 기록에 사찰의 전신은 文永 元年(1264) 龜山法皇의 어머니가 창건하였던 禪林寺殿이었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法皇이 수행을 정진하던 곳이 이후 南禪寺로 점차 寺勢를 형성하였음²¹⁾을 밝히고 있다.

또 사찰 시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 「文應皇帝外記」에는 法皇이 당시 같은 지역 東福寺에 거주하던 無關普門이 덕이 높은 것에 감동하여 그가 병이 깊었을 때 직접 약을 지어 바치는 등 둘 간의 교류와 그로 인하여 禪에 귀의한 法皇이 禪林寺殿을 禪林禪寺라 칭하고²²⁾ 초대주지로 無關普門을 추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이러한 禪林禪寺가 본격적인 伽藍으로 정비가 착수된 시점은 永仁 7年(1299) 이후²³⁾이며 그 해(1299) 法皇이 직접 작성한 起願文에는 사찰정비와 法嗣, 住持 선정의 기준까지 상세히 적고 있다.

禪林禪寺가 언제부터 南禪寺로 지칭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乾元 元年(1302) 寺院 문서에 南禪寺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즈음하여 南禪寺로 개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寺名을 南禪寺라 한 것은 당시 南宗과 北宗으로 분열되었던 禪宗 가운데

21) 羽田聰, “南禪寺の歴史, 中世,” 「南禪寺: 龜山法皇七〇〇年御忌記念」(東京: 朝日新聞社, 2004), 17.

22) 櫻井景雄, 「南禪寺史, 上」(京都: 法藏館, 1977), 46.

23) 上掲書, 46: 羽田聰, “南禪寺の歴史, 中世,” 18.

데 南宗禪이 勢를 떨치게 되어 寺流가 南禪宗이 우세하자 그에 따라 사찰명도 더불어 변경하였던 것²⁴⁾으로 여겨지고 사찰이 伽藍으로서 완성된 면모를 갖춘 것은 延慶年間(1308~1310)의 일이다.

이후 南禪寺는 持明院統과 大覺寺統의 양분 체제에서 持明院統을 계승하여 제3대 一山一寧(1247~1317), 제5대 約翁德儉(1245~1320), 제14대 淸拙正澄(1247~1339) 등 法皇의 뜻을 이어받은 臨濟宗 각 流派들의 대표적인 승려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²⁵⁾

당시 南禪寺의 주지는 京都 五山 즉 天龍寺, 相國寺, 建仁寺, 東福寺, 萬壽寺에 거주하는 승려 가운데 한 명이 선발되었고 이들에 대한 역대 기록은 南禪寺에 전하는 「住持籍」에 자세하다.

저명한 고승들을 주지로 배출하며 寺勢를 확장한 가운데 수차례 병화와 興衰을 거듭하였고 16세기 江戸時代에는 幕府의 사원통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찰들은 本寺와 末寺 관계로 명맥을 유지하였던 바 南禪寺도 元祿年間(1688~1703)에 분말체제가 확립되어²⁶⁾ 시류의 예외일 수 없었다.

南禪寺는 특히 분말체제를 엄격히 준수하여 延享 3年(1746) 작성된 南禪寺派 소속의 寺院 명부에 상세히 나타난 것처럼 末寺 세분하여 孫末寺, 曾孫末寺 등으로 나누고 관련 규정들을 명문화 하는 등 한층 확고한 계층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享保年間 18세기 이후 南禪寺는 다른 임제종 사찰과 마찬가지로 수행의 장을 건고히 하였고 동시에 僧堂 건설에도 주력하여 禪道修行 체제를 확립하여 갔으며 이러한 사찰간의 협력 체제 즉 매년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5사찰이 함께 雨安居를 행하는 連環結制의 방식은 근대까지 지속되어 臨濟宗 南禪寺를 지속 시킨 바탕이 되었다.²⁷⁾

24) 櫻井景雄, 「南禪寺史, 上」, 48.

25) 羽田聰, “南禪寺の歴史, 中世,” 18.

26) 上掲書, 24.

27) 櫻井景雄, 「南禪寺史, 下」, 638.

3.3 南禪寺의 佛書 간행활동과 大藏經 수집

현존하는 南禪寺 유물과 관련 기록에 따르면 本寺에서의 직접적인 서적 간행과 출판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天正 19년(1591)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을 전후한 시기에 학문 장려책과 뒤이은 徳川家康의 文教復興策으로 말미암아 伏見 등지의 學校를 통하여 승려들에게도 학문이 교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서적의 간행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당시 家康이 학문 권장의 의도로 목활자 수십만자를 三要素元佶에게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元佶은 慶長 4년(1599)에 伏見版 즉 「孔子家語」, 「六韜」, 「三略」, 「貞觀政要」, 「東鑑」, 「周易」, 「七書」 등 80여책 이상을 간행하였으며²⁸⁾ 이후 三要素元佶은 남선사의 주지를 위임하고 나아가 圓光寺를 건립하였던 바 남선사 등 사찰에서의 서적 간행을 간접적이거나 짐작할 수 있다.

家康은 이 밖에도 慶長 11년(1606) 6월에 동활자 9萬 1,261字를 제작하여 조정에 헌납한 이른바 慶長勅版으로 다양한 서적을 인출하기도 하였고 「慶長日件錄」의 활자 조달기록에 의하면,

...六日晴 早朝 圓光寺來入 今日銅印字 可令進上...午刻銅印字箱百 圓光寺使僧持來...銅印字數覺 本字五萬五千三百六十字 注字三萬五千八百九十五字...²⁹⁾

라고 하여 南禪寺의 말사격인 圓光寺에서 서적인출을 위한 활자 수급 기록이 나타나는 바이 또한 본사 南禪寺의 활자수장 및 서적인출을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家康은 慶長 19년(1614) 10월 23일 오사카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경도

28) 上掲書, 444-445.

29) 百瀬宏, “駿河版銅活字: その成立と鑄造技法の解析,”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東京: 柏書房, 2000), 56에서 재인용.

에 와서 직접 金地院의 崇傳에게 일본의 古記錄과 文獻을 書寫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崇傳은 五山の 글 잘쓰는 승려 10명을 선발하여 필사작업에 참여시켰다.³⁰⁾

또 駿府로 옮긴 家康은 慶長 20년(1615) 「大藏一覽」과 「群書治要」 간행기록에 따르면 開版의 직접적인 담당은 林道春이 맡았으며 崇傳이 이를 도왔고 校合과 植手, 字彫, 字木切 등의 역할에 당시 駿府의 臨濟寺와 興津 清見寺의 승려 5-6명이 적극 개입하였다.³¹⁾

이와 같은 사찰기반의 京都 지역 인쇄기술은 慶長 初期에는 勅版과 伏見版이 중심이 되었고 이후 점차 駿河와 五山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요컨대 「群書治要」의 간행기록에 나타난 바처럼 南禪寺에도 雲岳, 靈圭, 西堂 등의 校合者가 있었으며 4월 인출이 시작되어 6월 완성에 이르는 기간동안 추가로 활자를 주조한 기록과 또 인쇄된 서적을 崇傳 등 五山の 승려들이 필사하는 거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현재까지 전하는 有刊記 傳本은 드물지만 南禪寺를 비롯한 사찰 중심의 문헌전승 작업이 면면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적의 간행뿐만 아니라 南禪寺를 포함한 京都 지역의 일부 사찰들은 이른 시기부터 高麗, 朝鮮과 교류하였고 이를 통해 대장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의 수집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일찍이 貞治 6년(1367)의 <醍醐寺文書>에 따르면 高麗에서 해적의 금압을 요구하기 위하여 파견된 金龍 일행 30여명이 일본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金一 일행도 도착하여 京都 五山 天龍寺에 머물렀는데 이들의 방문기간 동안 일본의 수장 足利詮義가 직접 天龍寺 雲居庵에 행차하여 高麗인의 무악을 관람하기도 하였으며 귀국시는 天龍寺의 승려들과 함께 高麗로 동행하여 양국간의 교류를 살필 수 있다.

日本の 南北朝時代 중엽 延文(1356-1360)중에 月庵禪師(자 宗光, 1326-)에 의하여 기반이 잡힌 神戶 禪昌寺는 남북조가 하나로 합해진 明德 3年(1392)으로부터 2년뒤 應永 元年(1394)에 이르러 筑前博多의 慶安에 의하여 1200권의 元版

30) 櫻井景雄, 「南禪寺史, 下」, 448.

31) 上掲書, 446.

大藏經을 寄進 받았다. 당시 동양 삼국은 法寶 大藏經을 갖추는 것이 대단한 유행이었으나 慶安 기증의 一切經은 그 권수가 1/3을 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사찰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대장경을 보충하기 위하여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하던 중 應永 7年(1400)에 이르러 高麗 初雕大藏經, 宋版經, 寫經의 대부분이 갖추어지고 소위 ‘禪昌寺의 法寶 七千卷’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후 170년간을 유지하다가 근세에 들어 文運復興期의 여파로 本山인 南禪寺의 法藏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장된 자료의 판본과 총수에 대하여 末松保和와 稻葉岩吉(1931)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刊本		4,634권
元版	2,253	
高麗初雕大藏經	1,715	
日本版	311	
北宋版	216	
南宋版	114	
高麗再雕大藏經	25	
寫本		1,051권
年代不明	876	
筆寫記本	175	
총계		5,685권

와 같이 元版本과 고려 초조대장경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조선초기부터는 사신들의 교류가 한층 빈번하였고 일본은 足利義持, 斯波義將 등 지도층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장경(一切經) 원본이나 판목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예물을 보내거나 조선인 포로귀환과 양국간의 돈독한 관계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승려들의 노력도 배가되어 文安 4年(1447) 4월 南禪寺에 봉안할 대장경 요청을 위하여 白河建聖院의 文溪和尚과 正祐 등이 직접 조선에 건너가기도 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요구에 쉽게 응하지는 않고 대신 布나 人蔘, 虎豹皮 등의

공물을 주었다³²⁾고 <建內記>와 같은 일본의 고문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1449년 5월 11일 <康富記> 기록에도 남선사에 안치할 대장경의 관목은 얻을 수가 없었음³³⁾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 조선으로부터 建仁寺 건립에 필요한 경비 1萬貫을 받았으며 長祿 4년(1458) 봄에는 일부 大藏經이 도착하였고 建仁寺 慈視閣 등에 黑漆函에 넣어 봉안되었던 바 足利義政, 瑞溪周鳳 등이 이를 열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徳川家康의 집권시기인 17세기 초 兵庫에 있던 南禪寺 末寺 禪昌寺에 大藏經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慶長 18년(1613) 崇傳이 家康에게 禪昌寺에 一切經이 있음을 아뢰고 본사인 南禪寺로 이관하기를 청하여 익년(1614) 正月 하명을 받아 본사 南禪寺로 이관토록 한 기록³⁴⁾도 전한다.

당시 崇傳이 板倉伊賀守와 주고받은 書狀에 따르면,

急度申入候 攝州兵庫禪昌寺之一切經 本寺南禪寺可被移旨 被仰出候所之地頭代官何へも
被申届 無異議候 寺著候様に候 爲其令啓候 恐惶謹言

과 같아서 一切經을 옮기고자 하는 家康의 의지를 알렸고 더불어 崇傳은 南禪寺의 여러 승려들에게도 상세히 書狀을 보내어 一切經의 이관을 지시하였다.³⁵⁾ 그 결과 慶長 19년(1614) 2월 4일과 5일 모든 一切經은 南禪寺에 도착하였고 현재까지 남선사에 소장되어 있는 5천권 大藏經의 토대가 되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당시에도 쉽지 않아서 崇傳이 남선사에 보낸 서찰 중 ‘各御油斷有間敷候’에 의하면 寺中の 중대사인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주의를 촉구하고 자신이 직접 禪昌寺에 갈 사람으로 眞乘院의 悅叔宗取, 大寧院의 元良西堂, 語心院의

32) 張東翼,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36-537.

33) 上掲書, 537-538.

34) 櫻井景雄, 『南禪寺史, 下』, 450.

35) 上掲書, 451.

36) 櫻井景雄, 『南禪寺史, 下』, 452.

元廣西堂 등을 지목한 뒤 갖가지의 절차와 연락을 취하였다.³⁷⁾

여기에는 자국 간행의 鎌倉期 판본과 五山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대륙의 판본 즉 宋·元版本과 우리나라의 초조 및 재조대장경도 함께 구비되었으며 부족분은 또한 補寫하여 완전한 일체경으로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와 같이 完帙을 갖춘 南禪寺 一切經은 대장경 간행사의 연구에 획기적인 지침이 되는 보고로서 자리매김하였다.

3.4 현재까지 파악된 南禪寺 初雕大藏經의 목록과 선행연구

3.4.1 목록과 수량

김두중은 南禪寺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조사를 언급하면서 日本 南禪寺의 重要文化財指定書에서 高麗板 1,748帖, 初板 310帖으로 되어 있음 지적하였다. 또 천혜봉은 전체의 수량에 대해서 「南禪寺經藏一切經目錄」에 의거하여 고려본의 총종수는 516종, 고종때의 간행년이 명시된 것이 11종, 간행년 표시가 없는 것이 505종이라 언급하였다.

한편 末松保和와 稻葉岩吉(1931)의 조사³⁸⁾에서는 高麗 初雕大藏經 1,715권과 再雕大藏經 25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해외 전적문화재 조사 중 南禪寺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목록에 의하면 611종 1,811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중에서 再雕大藏經을 대상으로 「南禪寺經藏一切經目錄」중 高麗 高宗刊記가 나오는 經典을 조사하면 다음의 12종이 나타난다.

深密解脫經	大乘起信論	三無性論
佛說魔嬈亂經		
弊魔試目連經	阿毗達磨俱舍釋論	舍利佛阿毗曇論

37) 上掲書, 451.

38) 末松保和, 稻葉岩吉, “南禪寺大藏經の瞥見,” 靑丘史草, 2(1966).

大唐內典錄
菩提行經 聖觀自在菩薩一百八名經 佛說大方廣善巧方便經
佛說大集法門經

그러나 소장자료에 대한 각 기관의 조사 수치가 이렇게 모두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수량 및 각 자료에 대한 정밀한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4.2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자료

南禪寺 자료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김두중, 천혜봉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김두중의 연구를 살펴보면 日本 南禪寺 重要文化財指定書を 바탕으로 남선사 소장 자료를 高麗板 1,748帖, 初板 310帖으로 파악하였다.³⁹⁾ 그러나 初雕本을 따로 구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는 海印寺 大藏都監本 또는 그 이후의 印本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初雕本 중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 「轉婆沙論 卷第一, 卷第九, 卷第十」, 「舍利佛阿毗曇論 卷第十六, 卷第二十二」 3種 6帖을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조사 자료에 대해 顯宗 때의 國前本이 아니라 文宗 때의 國後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천혜봉은 1차 조사에서 「御製秘藏詮 卷第一」을 포함하여 7種 29卷을 조사하였으며⁴⁰⁾ 2차로 조사한 것은 「信力入印法門經 卷第一」을 포함하여 45種 92卷을 조사하였다.⁴¹⁾

4. 南禪寺 大藏經 中の 高麗 관련 기록

南禪寺 대장경에는 한국, 중국, 일본에 만들어진 판본이나 사경들이 여러 종류

39)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81), 67.

40) 千惠鳳, 「韓國書誌學研究」, 428.

41) 上掲書, 429-430.

가 혼재되어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걸쳐 경전이 모아지고 대장경의 체제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책의 형태가 일부의 권자본은 절첩본으로 바뀌어지고 함차가 고쳐진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일부의 경전은 비록 판각과 인출은 중국에 되었으나 고려 왕실과 관련되거나 고려의 인물이 권말의 시주나 발원문 등에 등장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당시의 국제정세나 교류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특히 중국의 경전이 고려를 거쳐 일군의 장서가 이루어졌다가 고려말 조선초기에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판본을 조사함에 있어서 고려에서 기입된 책의 간행과 관련된 墨書나, 寫經의 본문, 날인된 印文, 본문중의 角筆, 釋讀口訣, 부호, 형태적인 변화도 기록과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자세한 사항이나 역사적 배경은 후속 연구로 미루고 우선 자료에 나타난 기초 데이터만을 우선적으로 소개하였다.

4.1 元版大藏經의 記錄

4.1.1 <佛本行集經> 卷31 卷首의 기록

推忠揆義協謀佐運功臣 開府儀同三司 太尉上柱國駙馬都尉藩王征東行中書省 右丞相

高麗國王 王 璋/

恭聞一大藏教 四十九年 金口親宣 無盡法門 五千餘卷 琅函具載 由羣/ 生根器之不等 故我/

佛 以方便垂子 雖分漸頓之科 皆致淵源之地 然則十方齊唱 千聖同/

修實苦海之慈航 昏衢之慧炬者也 顧我善根宿植 大法忻逢沃甘/

露於心田 播玄風於性境 是以常懷精進 夙夜匪忘 遂捨淨財 印造/

三藏聖教 一切法寶 計圓五十藏 布施四方梵刹 以廣流通 所集殊勳 祝延/

今上皇帝 聖躬萬萬歲/

皇太后懿筭無疆/

皇后共享 遐齡金枝玉葉 萬世流芳 恭願/

皇風永扇/

佛日增輝 箕畢相調 萬姓樂農桑之業 風塵載寢 四方無金革之聲 仍仰奉爲/

先考太師忠烈王/

先妣/

皇姑齊國大長公主 資嚴報地同證菩提 然後伏念弟子王璋/

性雖本妙 全體在迷 縱遇佛乘 修行尙昧 故於此世 多諸罪愆 或/

陵傲於人 或損傷物命 或情隨事變 言行乖違 或宿業所牽/

致成怨害 自作教他 見聞隨喜 乃至無始 以來諸惡業障 如是/

等罪無量邊 仰願/

諸佛慈悲 受我懺悔 以大法力 悉使消除 令我現生 獲大壽命 獲大/

安樂 修行有序 進道無魔 三業圓明 六根清淨 福德智慧 莊嚴/

共身 根根塵塵 固徧法界 行願早圓 菩提不退 臨命終時 心不/

顛倒 正念現前 聖衆冥加 卽登上品生 彼國 已隨我願心 普應十/

方淨佛國土 如上所願 願與法界一切有情 若自若他 彼彼無異 洎/

三塗受苦衆生 十類河沙鬼衆 冤親平等 或悟眞常 虛空有盡/

我願無窮 法性有邊 願心無極者/

皇慶元年歲在壬子九月 日 謹題

이 책은 元版大藏經으로 ‘所’함에 속하고 闍那崛多(隋)가 번역한 경전이다. 南禪寺에는 같은 제목의 초조대장경 권1-4, 6-11, 15-17, 20, 24, 38의 11책이 있고 개보칙판대장경도 1책 소장되어 있다.

위 기록은 忠宣王 4년(1312)에 해당되므로 돌아가신 忠烈王과 齊國大長公主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대장경을 간행할 때 발원한 글이다.

충선왕은 元에 머물면서 대장경이나 불경을 여러 사원에 자주 寄進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충열왕 31년(1305)에 大藏經 1부를 大慶壽寺에 보내고 충선왕 4년(1312) 9월에 瀋王府에 머물면서 12월에는 太子府 參軍 洪淪 등에게 명하여 南山 普寧寺版 대장경 50부를 印出하여 杭州 일대의 사원 중 上竺, 下竺, 集慶, 仙林, 明慶, 演福, 慧因, 崇先, 妙行, 靑蓮, 惠力寺의 11개 사찰에 1313년 3월부터 寄進하였다.

이 때 洪淪이 慧因寺는 義天 大覺國師가 200년전에 傳法한 곳이나 당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사정을 忠宣王에게 보고하자 鈞旨를 내려 승려 10여 명에게 內帑을 가지고 증진하게 하였다. 더불어 1312년 겨울에 金字大藏經을 施納하고 2년 뒤에는 元瑄이 大藏經의 印本과 土地를 더 寄進하였다.

이러한 당시 충선왕의 행적에 대하여 張東翼은 이 시기가 1차 立省論이 제기 되어 고려 왕조의 존폐가 논의되다가 이 발원문이 만들어지기 3개월전에 중지된 바 있었던 원과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던 시기였던 까닭에 충선왕이 부처의 가호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⁴²⁾

특이할 것은 책의 뒷면에 ‘瀋王府’라는 직사각형의 朱印을 여러 곳에 날인하여 두었다.

4.2 「佛說解節經」의 卷首 記錄

이 기록은 앞서 「佛本行集經」에 나타난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기록이며 ‘身一’의 합에 포함되어 있다. 眞諦가 번역한 이 折帖本 각장의 난상에 ‘明州天寧藏經(세로4.3,가로3.1cm)’이라는 墨印이 날인되어 있고 뒷면에는 ‘瀋王府’(세로 3.2,가로1.3cm)라는 朱印이 찍어져 있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도장이 공통적으로 날인된 元版大藏經은,

- ① 「相續解脫地波羅密了義經」 求那跋陀羅(劉宋) 譯, 身二 [此]函, 각수명 ‘俞’
- ② 「緣生初勝分法本經」 達磨笈多(隋) 身四 [止]函

등이 더 있다.

42)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成」(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41.

각수명으로 ‘馬, 朱, 光’ 등이 보인다.

책에 찍힌 印章에 의하여 추정하면 이 책들은 14세기초에 충선왕이 항주일대의 사찰에 寄進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며 瀋王府에 보관되어 있다가 고려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 大藏經 외의 高麗 筆寫本

5.1 「解深密經」 권2,3의 권말 기록

5.1.1 권2의 권말 기록

‘貞祐十一年 癸未 六月日 寫成 /
金紫光祿大夫 知門下省事 守司空左僕射 文惟弼’

이 필사기는 권2의 기록으로 14자의 대장경 형식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의 장수는 권말에 ‘二十三丈 蓋’로 장수와 합차를 적었다.

이 책의 권수에는 禪昌寺에서 옮겨짐을 밝혀주는 朱印과 고려에서 적었을 ‘蓋’합차를 ‘此七’로 고쳐적고 있으며 저자표시는 ‘大唐三藏法師 玄奘 奉詔譯’이다. 형태적으로는 절첩의 한 면당 5줄씩 한 장에 20행(1,2,4장)과 21행(3,5-23)이 쓰여있고 ‘一切法相品第四, 五’의 내용이다.

5.1.2 권3의 권말 기록

‘貞祐十年 癸未 六月日 寫成 /
金紫光祿大夫 知門下省事 守司空左僕射 文惟弼’

이 필사기는 권2의 기록으로 14자의 대장경 형식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의 장수는 권말에 ‘二十三丈 盖’로 장수와 함차를 적었다.

이 책의 권수에도 선창사에서 옮겨짐을 밝혀주는 朱印과 고려에서 적었을 ‘盖’ 함차를 ‘此八’로 고쳐적고 있으며 저자표시는 ‘大唐三藏法師 玄奘 奉詔譯’이다. 형태적으로는 절첩의 한 면당 5줄씩 한 장에 20行이 쓰여있고 ‘分別瑜伽品第六’의 내용이다.

이 기록에 나타난 高麗 高宗10年(1223) 6월에 筆寫하여 완성한 文惟弼은 <高麗史>의 기록에 의하여 관력을 살펴보면,

高宗 3년(1216) 4월 在 樞密院使
7년(1220) 정월 貶 安西副使
8년(1221) 12월 任 守司空·左僕射
9년(1222) 12월 任 知門下省事
14년(1227) 12월 參知政事·判禮部事
15년(1228) 11월 卒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사기에 기록된 내용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책의 필사된 형식이 대장경과 같고 함차순이 유지되고 있으며 책의 지질이나 상태로 미루어보아서도 南禪寺에 소장된 대장경은 高麗時代나 朝鮮初期에 전래될 때 이미 보충된 상태의 것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1223년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한 질을 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이 책은 남선사 初雕大藏經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본의 인출시기의 하한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국내에 전존되고 있는 초조본은 글자의 탈획 부분이 많은 데 비하여 남선사본은 탈획과 마모가 적어서 국내전본들보다 빠른 시기에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2 「金光明經」卷第1, 2, 5

이 책의 물리적인 형태는 1장당 25행에 每行 17자가 배열된 목판본이다. 지질은 희고 광택이 나는 도침이 잘 된 고려의 닥종이에 인출되어 있다. 版心題는 ‘金經’이며 권수제 하단에는 墨書로 ‘化一’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는 일본에서 一切經을 구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경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당시 수집되어 있었던 고려의 사찰 간행본을 대장경의 일부로 편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기는 역시 선창사의 朱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이의 지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의 「深密解脫經」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5.3 「四分律藏初分」陸卷函, 卷第18

正議大夫左右衛 上將軍致仕 權 妻 /
牛峯郡夫人 崔氏 /
丙辰十月日誌 /
道人 性幢 寫

의 기록에서 高宗 43年(1256)경에 상장군 權某의 부인인 崔氏가 발원하고 性幢이 쓴 경전이다.

5.4 「高僧傳序錄」卷第14

泰和二年 壬戌 十月 日 書 /
將仕郎 司宰 注簿 同正 金永濟 /
神宗 5年(1202)에 김영제가 필사한 경전이다.

6. 版本에 나타난 각종 기록류

6.1 刻手名 記錄

일반적으로 再雕大藏經의 경우 변란 바깥 하단에 각수명이 기록된 경우가 많아서 선행연구에 의하여 여러 차례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初雕本에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보고된 예도 없다.

南禪寺 소장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에서 각수명의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 1) <六度集經> 8권중 권제6의 제1장에 ‘彦成’
- 2) <太子須大拏經>의 제2장
- 3) <佛說稱揚諸佛功德經> 卷中の 第9丈 ‘得己’
- 4) <佛說稱揚諸佛功德經> 卷下の 第22丈 ‘普暹’
- 5) <大威德陀羅尼經> 권20의 제1장 변란 ‘國成’
- 6) <大威德陀羅尼經> 권14의 제1장 ‘鷹卜夫’
- 7) <優婆塞戒經> 권2의 제1장 ‘春元福’
- 8) <佛說鴛鴦鬘經> 제6장 ‘海運’
- 9) <大智度論> 권65의 제3장 ‘郎仙’
- 10) <高僧傳> 권2의 제2, 29장 ‘彦一’
- 11) <善見毗婆沙律> 권7의 제6장 ‘貞儒’, 27장 ‘廣眞’
- 12) <阿毗達磨品類足論> 권3 ‘短一’
- 13) <阿毗曇毗婆沙論> 권21, 제1장 ‘直尼’, 17장 ‘興法’
- 14) <阿毗曇毗婆沙論> 권33, 제1장 ‘惠得’
- 15) <阿毗曇毗婆沙論> 권34, 제1장 ‘正一’
- 16) <阿毗曇毗婆沙論> 권36, 제1장 ‘眞善’, 30장 ‘惠得’
- 17) <阿毗曇毗婆沙論> 권37, 제1장 ‘應’
- 18) <阿毗曇毗婆沙論> 권39, 제1장 ‘智昌’
- 19) <阿毗達磨毗婆沙論> 권27, 제1장 ‘弘一’

- 20) <阿毗達磨毗婆沙論> 권29, 제1장 ‘妙漢’
- 21) <阿毗達磨毗婆沙論> 권30, 제1장 ‘貞舍’
- 22) <舍利弗阿毗曇論> 권4, 2·3·5·13·18·29 ‘千云’, 제21장 ‘闍’

6.2 再雕大藏經 調査分

- 1) <大乘起信論> 하권, 盡函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2) <三無性論> 권상, 盡函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3) <佛說伏姪經> 容函
- 4) <佛說魔嬈亂經> 容函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5) <弊魔試目連經> 容函, 癸卯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 6) <正法念處經> 권2, 癸卯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 7) <深密解脫經> 권1,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8) <四分律> 권33, 권36
- 9) <阿毗達磨俱舍釋論> 권14, 動函,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0) <舍利弗阿毗曇論> 卍函 권23, 面函 24·25·26·27

6.3 中國의 底本刊記와 出版記錄

- ① <貞元新定釋教目錄> 권1, ‘貞元十五年十月二十三日 奉勅修撰至六年四月十五日畢’
목서기록: ‘禪昌寺 貞元[권차] 感’
- ② <大方廣如來不思議境界經>의 第16丈 권말
聖曆二年 歲次己亥十月八日譯畢/
三藏沙門于闐國僧實叉難陀譯梵本 /
三藏沙門大福先寺僧義淨證譯梵本 /
烏菴國沙門達摩戰陀譯語 /

翻經大德大周西寺僧法藏筆受 /
翻經大德佛授記寺上座僧玄度綴文 /
翻經大德崇先寺上座僧法寶證義 /
翻經大德秦州大雲寺主僧靈叡證義 /
翻經大德荊州玉泉寺僧弘景證義 /
翻經大德大福先寺僧復禮證義 /
翻經大德大福先寺上座僧波崙證義 /
翻經大德長壽寺僧智凝證義 /
翻經大德大福先寺都維那僧□證義 /
翻經大德佛授記寺主僧德成證義 /
翻經大德中大雲寺都維那僧玄軌證義 /
判官承奉郎守左玉銓衛□參軍于師逸 /
使朝請大夫守太子中舍人上柱國賈膺福 /

③ <大方廣佛華嚴經> 권1, 周本

聖曆二年歲次己亥十月八日謹畢/
三藏沙門于闐國僧實叉難陀釋梵本/
三藏沙門南天竺國僧菩提流志同釋梵本/
三藏沙門迦濕你羅國僧阿你眞那證釋梵本/
烏菴國沙門達摩戰陀譯語/
佛授記寺僧道昌證譯語/
翻經大德佛授記寺上座僧玄度筆受/
翻經大德大福先寺僧復禮綴文/
翻經大德崇先寺上座僧法寶證義/
翻經大德秦州大雲寺主僧靈叡證義/
翻經大德荊主玉泉寺僧弘景證義/
翻經大德大福先寺上座僧波崙證義/
翻經大德長壽寺主僧智凝證義/

翻經大德大福先寺都維都僧慧儷證義/
 翻經大德大同西寺僧法藏證義/
 翻經大德佛授記寺主僧德威證義/
 翻經大德中大雲寺都維都僧玄執證義/
 判官承奉郎守左王銓衛□事參軍于師逸/
 使朝請大夫守太子中舍人上陵國賈膺福/

④ 참고자료

<宗鏡錄> 普寧寺版 100卷중 제21권, 일본 喜多院 소장
 杭州路南山大普寧寺大藏經局伏承 湖州路□程縣德政鄉橫欄埧居奉/
 佛弟子□智澄 同葉?施財刊開/
 尊經壹卷功德報答□...□/
 嘉議大夫耽羅軍民万户府達魯花赤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評理上護軍
 朴景亮/
 自揆非才幸塵有位籍庇/
 佛天之巨海涵恩/
 聖澤之陽春愧居天地之間莫効涓埃之報謹捐淨財印造/
 聖典全藏奉安于神孝寺永充供養流通教法所集鴻因端爲祝延/
 皇帝聖壽万歲/
 皇太后齊年/
 藩王 國王壽齡延永福祿增崇仍願考妣卽登淨域見/
 佛聞法延及自身康寧壽考恒祿位在生則安世緣於順境終身則超/
 善會之樂邦願與舉世吉人同証菩提彼岸無人無我悉潛心/
 獅座之眞詮有相有情共拭目/
 龍華之妙會者/
 皇慶三年三月 日謹誌/

이와 같은 기록류 중 고려인에 의하여 元에서 간행된 佛經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大寶積經> 31帖, 1314년, 일본 喜多院 소장
: 嘉議大夫耽羅軍民万户府達魯花赤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評理 上護軍 朴景亮
- 2) <正法念處經> 51帖, 1314년, 일본 園城寺 소장
: ...奉三寶弟子高麗國星山郡夫人車氏 特爲...印成大藏經一部...延祐元年 甲寅十月.. 殿前天友 通事康仁伯...
- 3) <大般若波羅密多經> 1326년, 普寧寺版 권1,11,21과 같이 각 묶음 첫권, 일본 西福寺 소장
: 宣授中儀大夫王府斷事官匡靖大夫僉議贊成事 上護軍 趙璉
- 4) <大盤若波羅蜜多經> 1328년, 普寧寺版, 妙光寺 소장
: 清信戒弟子故全州戶長 朴環 妻李氏女, 仰告十方...
- 5) <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廣大寶樓閣善住秘密陀羅尼經>
- 6) <說一切有部發智大毗婆沙論> 至正 年月日
: 奉 三寶弟子高麗國通直郎典校寺丞 李允升 同妻咸安郡夫人 尹氏 謹發 誠心拾財 印成大藏尊經一藏 敬安于鄉邑古阜郡萬日寺

6.4 2004-6년 조사분 卷末 記錄 資料

初雕本の 권말에 校勘이나 潤文, 翻譯 등 책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經典도 일부 조사되었다.

6.4.1 <阿毗達摩大毗婆沙論> 卷第九十九

卷尾題 다음에 번역의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顯慶四年三月四日於長安大慈恩寺/
翻經院三藏法師 玄奘奉 詔譯/
西明寺沙門 嘉尚 筆受

6.4.2 <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教王經> 卷第六

卷末에 證義, 筆授, 證梵文, 證梵義, 潤文者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講法華經 沙門臣 道一 證義/
講百法論金剛上生經 賜紫沙門臣 守贊 證義/
講金剛經百法論 賜紫沙門臣 靈哲 證義/
講百法論賜紫沙門臣 紹琛 證義/
知藏字學通慧大師 賜紫沙門臣 雲勝 證義/
講維摩金剛般若心經 明教大師賜紫沙門臣 道文 證義/
講入經四論 法濟大師 賜紫沙門臣 從志 證義/
講維摩上生經因明唯識論 證覺大師 賜紫沙門臣 守貞 證義/
講圓覺經起信唯識論崇梵大師 賜紫沙門臣 仁撤 證義/
講法華經百法論文章 賜紫沙門臣 句端 綴文/
梵學摠持大師 賜紫沙門臣 教宗 筆授/
梵學宣密大師 賜紫沙門臣 智江 筆授/
梵學光梵大師 賜紫沙門臣 惟淨 筆授/
梵學傳大教通梵大師 賜紫沙門臣 清沼 筆授/
西天譯經三藏 朝奉大夫試鴻月盧 卿 傳教大師臣 施護 證梵文/
西天譯經三藏 朝奉大夫試鴻月盧 卿 傳教大師臣 法天 證梵義/
內侍殿頭高品銀青光祿大夫檢校尚書右僕射兼御史大夫上柱國監譯
經臣 鄭守鈞/
中散大夫尚書司封郎中知制誥判史館事上柱國 賜紫金魚袋臣 朱昂
潤文.

6.4.3 <攝大乘論釋> 卷第十

卷末에 證義, 筆授, 證梵文, 證梵義, 潤文者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大忽持寺沙門 四依 初校 / 雲花寺沙門 無着 再校
大興善寺沙門 神慧 初校 / 淨域寺沙門 玄智 再校
大興善寺沙門 子端 初校 / 延興寺沙門 父世 再校
慈悲寺沙門 法印 初校 / 莊嚴寺沙門 玄奘 再校
會昌寺沙門 法倫 初校 / 會昌寺沙門 智寂 再校
明下坊主事臣馬 仁義 監 / 右內率府錄事參軍臣 趙摸 監
左武衛府倉曹參軍臣 盧爭臣 監 / 殿中尙乘直長臣 曾蔚丹 監
銀青光祿大夫行家令臣 間立本 摠監

6.4.4 <法苑珠林> 卷第八十二

권말에 다음과 같은 底本의 刊記와 擔當者 및 校勘記가 있다.

大宋咸平元年 奉/ 勅雕/ 編錄通慧大師賜紫沙門臣 雲勝 較勘/
內品監 印經院臣 陳彙泰/ 內侍殿頭高品尙當印經院臣 鄭守鈞

6.4.5 <大乘舍黎婆擔摩經>

권말에 다음과 같은 책의 성립과 潤文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講維摩金剛經百法論 沙門臣 全永 證義
較會藏經字學 沙門臣 雲勝 證義
講法華經因明論 賜紫沙門臣 歸省 證義
講維摩金剛般若心經 明教大師賜紫沙門臣 道文 證義
講法華經百法唯識論 正法大師賜紫沙門臣 守遵 證義
講維摩經百法論 演教大師賜紫沙門臣 惠超 證義
講維摩上生經百法論 宣教大師賜紫沙門臣 惠達 證義
講百法論 明信大師賜紫沙門臣 守巒 證義

梵學賜紫沙門臣 惟淨 筆授
梵學傳大教通梵大師賜紫沙門臣 清沼 筆授
應 制 慧通大師賜紫沙門臣 智遜 綴文
左街副僧錄 智照大師賜紫沙門臣 惠溫 證義
西天譯經三藏朝散 大夫 試鴻月廬 卿傳教大師臣 法天 證梵文
西天譯經三藏朝散 大夫 試光祿卿明教大師臣 法賢 證梵義
西頭供奉官 銀青光祿大夫檢校兵部尙書兼御史大夫上柱國監譯經
臣 張美
殿頭高品宣德郎檢校太子賓客守內侍省內謁者監兼侍御史飛騎尉監
譯經臣 楊繼詮
中散大夫守太僕少卿柱國賜紫金魚袋臣 張洎 潤文

6.4.6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一

권말에 나타난 번역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大周 大足元年 九月二十三/ 日於 神都 大福先寺 翻經/ 院 三藏法師
義淨 奉制譯/
翻經大德 大福先師 婆羅門 三/ 藏 寶思惟[]梵文/
翻經大德 大福先師 婆羅文 沙/ 門 尸利末多 讀梵文/
翻經大德 大福先師主 沙門 法藏
翻經大德 崇先寺上座 沙門 法寶/
翻經大德 佛授記寺寺主 沙門 德感/
翻經大德 大福先寺上座 沙門 波崙/
翻經大德 崇先寺 沙門 神英/
翻經大德 大福先寺 沙門 勝莊/
翻經大德 佛授記寺 沙門 慧表 筆受/
翻經大德 大周西寺 沙門 仁亮/

翻經大德 大福先寺 沙門 慈訓/

翻經使 成均大學助教 上騎都尉 通/直郎 許觀 典劉/

6.4.7 <說一切有部發智大毗婆沙論> 卷第九十六

顯慶四年二月二十日於長安大慈恩寺/

翻經院三藏法師玄奘奉詔譯/

西明寺沙門嘉尚筆受/

6.4.8 <說一切有部發智大毗婆沙論> 卷第九十九

顯慶四年三月十四日於長安大慈恩寺/

翻經院三藏法師玄奘奉詔譯/

西明寺沙門嘉尚筆受/

6.4.9 <佛說戒消災經>

捨入斯經奉爲眞法首座/

宓願生莊嚴佛地世建立法幢/

考妣共得迢昇之功恩有齊報資之益/

應永七年庚辰六月十六日願主比丘尼眞璋敬啓

6.4.10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卷第五十

大周長安三年歲次癸卯十月巳/ 未朔四日壬戌三藏法師 義淨 奉/

制於長安西明寺新譯 并綴文正字/

翻經沙門 婆羅門 三藏 寶思惟/

證梵義/

翻經沙門 婆羅門 尸利末多 讀梵文/
翻經沙門 七寶臺 上座 法寶 證義/
翻經沙門 荊州 玉泉寺 弘景 證義/
翻經沙門 大福先寺主 法明 證義/
翻經沙門 崇先寺 神英 證義/
翻經沙門 大興善寺 □禮 證文/
翻經沙門 大福先寺 上座 波崙 筆受/
翻經沙門 清禪寺主 德感 證義/
翻經沙門 大周西寺 仁亮 證義/
翻經沙門 大惣持寺 上座 儀 證義/
翻經沙門 大周西寺主 法藏 證義/
翻經沙門 佛授記寺 都維那 惠表 筆受/
翻經沙門 大福先寺 勝莊 證義/
翻經沙門 大福先寺 都維那 慈訓 證義/
請翻經 沙門 天宮寺 明曉

6.5 ‘瀋王府’ 朱印이 날인된 자료

- 1) <佛說解節經> 此函, 元版, 난상에 ‘明州天寧藏經’ 墨印
표지서명: ‘解節經’
- 2) <相續解脫地波羅密了義經> 此函, 元版, 난상에 ‘明州天寧藏經’ 墨印
- 3) <緣生初勝分法本經> 此函, 元版, 난상에 ‘明州天寧藏經’ 墨印
- 4) <十誦律> 政函, 元版, 각장 뒤에 날인
- 5) <四分律藏> 元版, 권41-46, 각장 뒤에 날인

여기서 ‘瀋王府’란 瀋王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瀋王’이란 고려 후기에 瀋州와 遼陽의 고려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元에서 고려 왕족에게 수여한 封號

이다. 당시 이 곳은 고려 왕족인 王綽과 그 후손들이 瀋州를 통치하고, 洪福源의 후손들은 遼陽을 맡게 하였다가 충열왕 22년(1296)에 두 곳을 합쳐 瀋陽等路安撫高麗軍民總管府를 설치하였다. 1307년 충선왕이 元의 武宗을 옹립한 공으로 '瀋陽王'으로 봉해졌다가 忠宣王 2년(1310)에 '瀋王'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 때 심왕이 연경에 거주 하던 곳을 '瀋王府' '瀋府' '瀋邸'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여기서 심왕을 도운 인물들은 '瀋王臣', '瀋府僚佐'로 불리었다.

北村秀人에 의하면 瀋王이라는 1字의 왕호는 몽고 종실 황자의 예를 따른 것으로 2字의 왕호보다 더욱 지위가 높은 것이었으며 '瀋王府' '瀋府'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瀋邸'와 마찬가지로 심왕이 거주한 저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朱印이 있는 원판본 대장경들은 당시 연경에서 모아진 것으로 이 들 자료들이 고려로 이동된 것은 14세기 전반기의 어느 시기 즉 충선왕이 고려왕으로 활동하는 것과 같은 시기로 추정되며 다른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들이 모아질 때 같이 합쳐져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이동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7.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南禪寺에 소장된 高麗 初雕大藏經의 형태적 특징, 규모와 전래경위를 밝혀보았다. 먼저 南禪寺의 대장경은 14세기부터 九州 博多에서 慶安에 의하여 중국, 고려의 대장경이 수집되어 神戶의 禪昌寺로 옮겨지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15세기초에 이르기까지 필사로 보충하여 성립되었다.

禪昌寺에 보관 중이던 대장경은 여러 차례의 내전과 德川家康 시대를 거치면서 南禪寺 崇傳의 노력에 의하여 17세기 초에 옮겨지게 되었다.

대장경에 포함된 자료는 일부의 宋版本과 元版本과 더불어 고려의 초조대장

경이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또 일부 포함된 사경 중에는 일본에서 결락된 부분을 채운 것 외에 고려에서 전래될 때 文惟弼 등 13세기에 인물들이 書寫와 경전의 성립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몇몇 자료에 의하여 초초대장경의 전래시기를 추정할 수도 있다.

한편 元版大藏經 중에 기록된 충선왕의 大藏經 印出과 中國 寺刹에 대한 寄進 活動을 통하여 당시 상호교류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경전의 후면에 찍힌 ‘瀋王府’ 인장을 통하여 元版大藏經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고려로부터 초조본과 함께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板刻面에서도 일부의 경전에 한정되지만 刻手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함차순 ‘字號’의 사용 등은 중국의 대장경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현재까지 「佛說莊嚴論經」을 위시한 일부 경전에서 海印寺 再雕 大藏經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용상의 부분적이 차이는 자주 발견된다.

印面을 통한 板刻의 양상이나 印出의 상태면에서는 국내의 傳本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紙質 또한 비교적 균일한 상태이다. 다만 본문을 살펴보면 「四分律」, 「續高僧傳」 등에서 보이듯이 板刻 후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몇 행씩 따내고 메목으로 끼워 넣은 흔적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초조본의 판각 당시에도 원고의 수정이나 교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11세기 자료에서 자주 볼 수 없는 刻板에 참여한 刻手의 이름이 다수 확인된 점과 函次表記에 「字號」라는 용어가 쓰인 점도 中國 底本의 양상과 관련 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開元釋教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1집(1995), 75-166.

고려대장경연구소.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4.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 近藤利弘. “神戶·禪昌寺舊藏, 大本山南禪寺藏一切經の由來.” 「제3회 韓國佛敎學結集大會 別지」. 합천: 해인사, 2006.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童珪. 「二十二種大藏經通檢」. 北京: 中華民國出版, 1997.
- 류부현. “寺刊版 50권본 화엄경 권제29 연구.”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13-131.
- 末松保和, 稻葉岩吉, “南禪寺大藏經の瞥見.” 「靑丘史草」 2(1966).
- 百瀨宏. “駿河版銅活字: その成立と鑄造技法の解析.”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東京: 柏書房, 2000.
- 小野玄妙. “高麗大藏經雕印考.” 「佛典研究」 (1929), 1-4.
- 櫻井景雄, 藤井學 共編. 「南禪寺文書」. 上(1972)·中(1978)·下(1978) 卷. 京都: 南禪寺宗務本所, 1972, 1978.
- 이승재. 「50권본 화엄경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羽田聰. “南禪寺の歴史, 中世.” 「南禪寺: 龜山法皇七00年御忌記念」. 東京: 朝日新聞社, 2004, 17.
- 張東翼.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7.
- 정필모. “高麗 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3-108.
- 妻木直良. “契丹に於ける大藏經雕造の事實お論ず.” 「東洋學報」 2輯(1912), 330.
- 千惠鳳. 「韓國書誌學研究」. 서울: 삼성출판사, 1991.
-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在本과 그 特性.” 「大東文化研究」 11집(1976), 167-220.
- 千惠鳳. “고려 초조대장경 - 그 원류, 영향 및 이설의 검토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9집(1980), 47-62.
- 竺沙阿章. 「宋元佛敎文化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0.

к с і